

1. 순천지역의 사족동향

조선 전기 순천지역은 관료 출신의 성씨, 통혼으로 이거·정착하는 성씨, 기존의 토착세력으로서 기득권을 유지했던 본관지의 성씨들이 향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예컨대 토착성씨로 순천(順天) 김씨(金氏), 순천(順天) 박씨(朴氏), 순천(順天) 장씨(張氏) 등이 대표적이고 이들과 통혼으로 연결되는 이거세력들은 '사림적' 분위기를 강하게 가진 집단들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권40, 순천도호부의 성씨조와 인물조)을 참고하면 이들 집단은 순천을 본관으로 하는 앞의 세 성씨와 통혼을 통하여 연결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순천에서 유력한 세력으로 인정되는 성씨들은 대부분 새롭게 이주 정착하여 씨족집단을 형성한 부류들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15세기 초에 입향한 옥천(玉川) 조씨(趙氏), 1498년 무오사화 이후 입향한 고령(高靈) 신씨(申氏), 1504년 갑자사화 이후 입향했다는 양천(陽川) 허씨(許氏), 16세기 초에 입향한 것으로 전해지는 목천(木川) 장씨(張氏), 경주(慶州) 정씨(鄭氏), 상주(尙州) 박씨(朴氏), 16세기 중반에 입향한 성주(星州) 배씨(裴氏), 양성(陽城) 이씨(李氏), 16세기 후반에 입향한 광산(光山) 이씨(李氏), 17세기 초에 입향한 제주(濟州) 양씨(梁氏) 등이 바로 그러한 성씨 집단들이다.

순천은 전라도에서 가장 먼저 서원이 건립되는 지역으로 주목되는데, 김굉필(金宏弼)을 주벽으로 1564년 건립된 옥천서원이 바로 그것이다. 이 시기 순천에서 사족세력이 집단을 이루며 향촌사회의 주도세력으로 성장해가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순천지역의 사족들은 김굉필과 조위의 임청대(臨淸臺) 사적을 유서로 하여 옥천서원을 건립하였다. 김굉필은 무오사화로 1500년 순천부(順天府)로 유배되어 1504년에 갑자사화로 적소(謫所)에서 생을 마쳤는데, 이때 매계(梅溪) 조위(曹偉) 역시 무오사화로 순천으로 이배되어 향중의 사족들과 임청대를 중심으로 교류하였다. 임청대는 순천사림의 태동기에 관련되는 유적으로, 사림기반이 미약했던 상태에서 김굉필이나 조위와 같은 유학자들이 일시적이거나 이곳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의 유학적 소양을 가진 사림들에게 자극이 되는 바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구암 이정(柳)은 김굉필·조위의 사적을 서원으로 발전시킨 인물인데, 이 시기에는 순천에서 배출된 사족세력이 활동을 시작하던 때였다. 즉, 16세기 중반 승평사은(昇平四隱)으로 지목되는 순천 출신의 배숙(裴壽)·정소(鄭沼)·허엄(許淹)·정사익(鄭思翊) 등이 이정과 협력하여 순천의 사족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이러한 사족적 분위기는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걸쳐 발생한 임진·병자 양란에서도 그대로 발현되었다. 이 양란은 향촌사회에서 사림세력이 재편성, 또는 재결집되는 데 크게 작용하였다. 예컨대 목천 장씨 장윤(張潤 : 1552~1593)은 순천지역을 대표하는 임란공신(壬亂功臣)으로 좌의병부장(左義兵副將)으로서 진주성에서 전사하였고, 박대봉(朴大鵬 : 1525~1592)은 상주 박씨 입향조 박중손의 증손자로 임진왜란 때 고경명(高敬命) 등과 의병활동을 하다가 금산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양천 허씨 허일(許鎰)도 임진왜란 중에 김대인(金大仁), 정사준(鄭思竣), 셋째 아들 곤(坤) 등과 활약하였다. 한편 경주 정씨 정사준은 임진왜란 때 아우 사형과 함께 충무공 이순신을 따라 공을 세웠으며, 그의 아들 선(愼)도 임진왜란 때 의주 피난에 공이 있었다.

대체적으로 임진·병자 양란의 발생으로 지역에 따라 지배세력의 판도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이 순천지역의 경우 주요 사족가문들이 왜란에 직접 참여하여

공훈을 남김으로써 과거의 주도권이 크게 변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이들 의병참여 세력들이 전란 후 순천의 각종 복구작업을 추진하였다는 점을 보아 알 수가 있다. 즉 순천지역에서는 임진왜란 직후인 1605년에 향안(鄕案)이 다시 작성되는데 그 주도세력은 다른 아닌 앞의 사족가문들이었다. 1605년 다시 작성되기 시작한 ‘향안’은 이후 1623년, 1640년, 1694년, 1721년 5차례에 걸쳐 계속 작성되었으며, 이 같은 향안의 작성과 함께 옥천서원의 중수와 팔마비의 중건, 향교의 중수 등은 아직도 사족의 향안질서가 관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면이다.

순천사림의 상징적 집회소였으나 1597년의 정유재란으로 소실된 옥천서원이 재건되는 것도 1604년이었는데, 당시 주동세력은 원유(院儒)로 있던 허건(許鍵)·심윤(沈琬)·정지추(鄭之推) 등으로 밝혀지고 있다.(1653년 재중수는 조시일 등이 주동)

한편 이들은 1617년의 팔마비(八馬碑) 중건 때도 힘을 모아 활약하였는데, 그 전후 내막은 이수광의 「중건음기(重建陰記)」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도 순천지역 사족들의 지위가 크게 동요되지 않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팔마비 「중건음기」를 보면, 팔마비가 정유병재(丁酉兵災)에 훼손된 이후 복구되지 않은 채 20년이 지나 1616년 고을의 대표가 방문하여 이를 도모한 즉, 읍의 현장자(賢長者)인 허건과 생원 정지추 등 몇 명이 비용을 모아 해를 넘기지 않고 완성하였다고 하였다. 팔마비의 복구에 비록 부사의 힘을 빌리는 했지만 임진왜란 후의 사정을 감안할 때 이 두 가지 중건활동은 이전 시기와 변화 없이 순천사족들의 기능과 역할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순천향교 역시 이 시기에 중수되었는데 1609~1610년 그리고 1647년의 재중수활동이 바로 그것이다.(「순천향교중수기」) 이 중수 과정에는 당시 순천부사의 지원과 흥학의 열의가 기반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주도인사는 건국 조유의 8세손인 조시일(趙時一)과 조원겸으로, 병자호란 때 의병으로 참여했던 인물들이다. 이를 보더라도 순천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기존의 사족세력이 양란을 경유하면서도 커다란 타격을 받지 않고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변화의 조짐과 모습도 적지 않게 보이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은 순천부사로 부임하였던 황익재(黃翼再 : 1682~1747)가 순천지역의 폐단을 9개 조로 지적한 데서도 잘 나타난다. 그가 지적한 폐단의 대부분은 당시의 기본적인 사회문제였던 토지문제, 군정과 군역문제, 공방과 각 아문의 수탈문제 등이었다. 그러나 그가 양민책으로 사창제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교민책으로 향약의 실시와 양사재의 운영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순천의 사정이 전과 같지 않았음을 잘 보여준다. 특히 뒤이은 시대에 편찬된 『항남약부』에서 이서배의 농간과 방자함이 거론되고 있음을 상기할 때 그 같은 상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